



토끼풀



(학명 : *Trifolium repens*, 콩과)

토끼풀은 다년생 콩과식물로 유럽원산이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분포 되어 있다. 식물 전체에 털이 없고 밑 부분에서 갈라진 줄기가 옆으로 기면서 마디에서 뿌리가 내린다. 잎은 호생하며 엽병이 길고, 소엽은 세 개이며 도란형 또는 도심장형이며 원두 또는 요두(凹頭)이며 엽병이 없다. 소엽의 길이는 15~25mm, 나비 10~25mm로서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고 탁엽은 난상 피침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두상화서에 많은 꽃이 산형(傘形)으로 달리며 화경은 길이 20~30cm이고 꽃은 6~7월에 피지만 영양상태가 좋으면 8월에도 피는데, 백색이고 길이 9mm 정도다.

토끼가 이 풀잎을 잘 먹으므로 '토끼가 잘 먹는 풀'이라는 뜻으로 '토끼풀'이라고 불리는데 아주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된다. 영어로는 clover 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토끼풀과 함께 클로버로도 통한다. 학명에서 *Trifolium*은 소엽이 세 개라는 뜻인데, 같은 콩과식물인 싸리속도 소엽이 세 개씩이다. 나폴 레온이 전투 중에 네 잎이 달린 클로버를 발견하여 그 풀을 자세히 보려고 허리를 굽히는 순간 충알이 지나갔다고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충알을 맛을 뻔하였다고 하여 네잎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한다. 네잎클로버는 돌연변이의 일종일 것인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한다면 대량 재배를 하거나 화분에 심어 상품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토끼풀은 좋은 밀원식물로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다. 꿀의 품질도 최상품으로 구미의 호텔에서 식사를 할 때 빵에 발라먹을 수 있게 클로버 꿀이 작은 팩에 담겨 제공된다. 다른 꿀도 두 가지 정도 함께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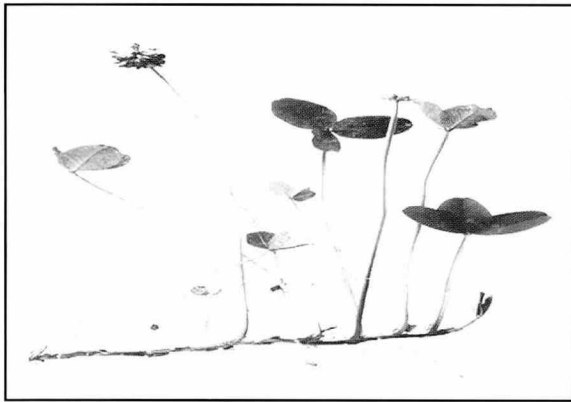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보는 토끼풀은 흰 꽃이 피지만, 그래서 '화이트 클로버(White clover)'라고 불리지만, 레드 클로버(red clover)도 있다. 꽃의 색이 붉으며 화이트 클로버보다 초세도 강하고 꽃도 조금 더 크다. 크림슨 클로버(crimson clover)도 있는데, 이름으로 보면 아마도 꽃의 색이 진홍색일 듯하다. 모두 좋은 밀원으로 알려져 있다.



토끼풀 개화모습. 6월부터 8월까지 꽃이 퍼서 꿀벌도 계속 온다.

콩과식물이니까 질소비료를 스스로 합성한다. 따라서 척박한 토양에서 다른 식물들을 이긴다. 양봉인들에게는 반가운 식물이지만, 잔디밭을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골치 아픈 식물이다. 해마다 몇 번씩 캐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끼풀은 다년생초본이고 줄기에서 바로 뿌리가 나오고 잎이 잔디보다 넓으므로 잔디에게 이긴다. 키도 잔디보다 조금 크다. 양봉을 하는 사람으로서, 토끼풀을 캐내려고 애쓸 필요 없이 잔디밭 대신에 토끼풀밭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토끼풀의 번식은 매우 쉽다. 토끼풀을 한 삽 떠서 공지에 심으면 일년에 4배 정도 번진다. 썩이나 바랭이 등 경쟁식물을 일년에 두어 번 뽑아주고, 비료라도 조금 주면 더욱 빨리 퍼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만 평에 토끼풀을 재배하기는 어렵겠지만, 양봉장 주변 공지에 몇 삽 심어주고 조금만 관리를 해 주면 꿀벌의 여름 기본식량으로 귀중하게 쓰일 것이다.



토끼풀 줄기, 소엽은 대부분 세 개씩이나, 간혹 네 개인 것이 있다. 왼쪽 꽃은 꽃이 갈색으로 진 것이고, 오른쪽이 백색으로 피어있는 꽃이다.



레드클로버(red clover). 보통의 화이트클로버보다 초세도 강하고 꽃도 조금 더 크지만 꿀샘이 깊어 꿀벌은 별로 가지 않는다.



토끼풀은 조금만 돌봐주면 한 해에 4배 정도 번식한다.